

栗谷 李珥 시의 紀實性에 대하여

홍 학 희*

차 례

- | | |
|---------------|---------------|
| 1. 서론 | 3. 시적 표현의 진실성 |
| 2. 시적 제재의 진실성 |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退溪 李滉과 더불어 조선조 성리학의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인 栗谷 李珥(1536 - 1584)의 시에 대하여 살펴 보려는 것이다.

이이의 시는 천지에 미만해 있는 도체, 즉 理의 세계를 읊기도 하고, 자연이 이미 도체의 구현체임을 전제하고 그러한 자연 안에서 성정을 도야하는 모습과 흥취를 노래하기도 하였다. 또 교유의 현장에서 창화하고 응수하며 人事를 읊기도 하고, 적극적인 유람의 체험으로 기행시를 짓는 데 열중하기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시가 '진실함'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가 진실하다 함은 그것이 읊는 대상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것이며, 관념이나 상상이 아닌 바로 이 곳에서의 일이라는 것이다. 즉 시가 담고 있는 세계가 자기 시대적, 자기 공간적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이이 시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제재의 측면에서 허구가 아닌 실재의 세계, 비일상이 아닌 일상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수사의 측면에서 인명, 지명등 조선의 고유 명사를 시어로 사용하고, 전고의 활용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시를 쓰고 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시인들이 閨言體나 滯塞風 등 風體模擬作을 지어 있을적 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주제를 말하곤 하였던 점과 분명히 대조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이 시의 이러한 특징을 ‘紀實性’이라 이름하고 제재와 표현의 양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시적 제재의 진실성

시가 허구가 아닌 실재의 세계를 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눈 앞에서 직접 바라보고 체험한 것을 읊는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시를 보자.

躑躅涉險政斜暉 小店依山汲路微 谷鳥避風尋樾去 村童踏雪拾樵歸 巖驂伏檻啖枯草 倦僕燃松爇冷衣 夜久不限群籟靜 漸看殘月透柴扉	험한 길 오르다보니 어느새 석양이라. 산 밑 작은 주점에 물 나르는 길도 희미하네. 골짜기 새는 바람 피해 숲 찾아가고 마을 아이는 눈 밟으며 펠나무 주워가며 여원 말은 마판에 누워 마른 풀 씹고 게으른 종은 숯불 피워 차가운 옷 다리누나. 깊은 밤에 잠 안 오고 못 꺾는 고요한데 차가운 달만 점쳐 사립문에 스며드네.
--	---

『栗谷全書』 <조령에서 유숙하며. 宿鳥嶺>¹⁾

이 시는 조령을 넘으면서 맞은 산골의 겨울 밤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새들도 추위를 피해 잘 곳을 찾아 날아 들어가는 저녁 무렵 마을 아이들은 밤새 군불을 땀 나뭇가지들을 부산히 쬐고 있는데,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찾아든 작은 주점에서는 여행에 지친 여원 말들이 마른 풀을 씹고 있고, 한편에서는 게으른 종

1) 이하 인용되는 작품은 모두 『栗谷全書』에 실린 것으로 책명의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화로에 숯불을 피워 아마도 하품을 하면서 억지로 눈을 비벼가며 인두로 옷을 다리고 있다. 겨울 밤 산골 서민들의 일상적이면서도 고단한 생활상을 미화 없이 그대로 그린 것으로, 있었던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읊은 실경의 포착이 공교롭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고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다 보니 체험에서 나온 시만이 갖는 생생함이 넘친다.

이렇게 지금, 이 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물에 근거하여 시를 쓰고자 하는 그의 태도는 자연히 조선의 소박한 경물을 꾸밈없이 담담하게 담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村犬吠柴門 마을 개는 사람문 옆에서 짖고
 數家依古木 몇 채의 집은 고목 곁에 의지해 있네.
 荒田半嶺橫 목은 밭은 고개 중턱에 비껴 있고
 細逕緣溪曲 오솔길은 시냇물 따라 구불렁하네.

<오원역에 쓰다. 題烏原驛三首>

위의 시는 여행 도중 오원역에 들러 주변 마을의 정경을 그린 시로 이이는 여기서 6수의 연작시를 지었다. 그 중 3수는 원집에, 3수는 습유편에 실려 있는데 이 시는 습유편에 실린 3수의 시 가운데 제 2수이다. 이 시를 읽으면 한국의 전형적인 시골 풍경을 보는 듯하다. 고목 나무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가집과 고개 중턱의 목은 밭, 시냇물과 물을 따라 난 좁은 오솔길이 모두 시원하게 쭉 퍼져 흐르지 못하고 구불렁한 모습, 사람문 옆에서 낯선 손님을 보고 짖어대는 마을 개들. 산수화라기보다는 한 쪽의 민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한시 작가들은 책에서 읽거나 그림에서 본, 혹은 이미 詩化된 중국의 畵景을 직접 시로 옮겨나, 혹은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조선의 경물을 중국 시에 표출된 정서라는 필터로 한 겹 걸러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중국의 한시에서 자주 쓰였던 원숭이, 앵무새, 계수나무 등의 관습적 표현이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보통 한시에서 이런 표현을 즐겨 하게 되는 것은 한시에서는 생경한 우리의 경물 대신 자주 쓰여왔던 중국의 경물을 씌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雅化시켜 전형적인 한시의 의취나 의경을 이루어내려는 것이다. 또 중국 한시의 전통에서 형성되어온 극적인 효과를 노리거나,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고 이국적인 취향을 자극하는 등

여러 가지 유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삼당시인의 대변인격인 허균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우리 나라에 없는 두견, 원숭이, 비취새, 자고새 등을 시어로 쓰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시인이 흥에 느껴워 시를 쓸 때 그가 느꼈던 바로 그 의경을 효과적으로 시화할 수만 있다면 실제와 맞지 않는 시어를 사용한다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²⁾ 그러나 이러한 정서가 허구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이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이이의 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의 산천을 그린 것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소재들을 시에서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그가 살고 있는 조선의 산천과 경물에 입각하여 시를 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극적인 효과를 결하여서 무미건조하고 심심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이이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은 사물을 관습적으로 빌어다 쓰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대부분의 시인들이 중국의 閑言語나 邊塞風과 같은 風體模倣作을 많이 지었던 데 반해 이이의 문집에는 그런 작품이 단 한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蘿絲止還復	장밋비 오락가락하니
窓戶晝難明	낮에도 광문이 어둑어둑하구나.
電影橫天走	번개 그림자는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고
雷車良雨行	우레 소리는 비를 끌고 웅황웅황 다니네.
葉中鶯語濕	잎새 속에 피꼬리 소리 물벼금고
風處燕翎輕	바람 불자 새비 날개 위태위태하다.
細話三年別	삼년 동안 헤어졌던 일 자세히 이야기하다가
愁看鏡裏形	거울 속의 얼굴을 시름으로 지켜보네.

<여수와 함께 경로의 집에 가서 회포를 읊다. 與汝受往景魯家詠懷>

무엇보다 이러한 시에서 그려지는 경물들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살아있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그 때 거기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의 살아 움직

2) 許筠, 「惺叟詩話」, “李堅幹詩… 隔窓杜宇終宵聽 啼在山花第幾層 此詩當時以爲絕唱 余頃遊關東 其所謂社鶯者 卽鼎小也之類 浙人王子箚 四川人商那奇 俱嘗來江陵 余問之二人 皆曰 非杜鶯也 蓋詩人托興言之 雖非其物 用之於詩中 如隔林空聽白猿啼者 我國本無猿也 如修竹家家翡翠啼者 見青禽 而謂之炎洲翠也 鷓鴣驚籟海棠花 … 行不得也 皆此類歟”

이는 자연을 그리고 있다. 장마철이 되어 흠비는 쏟아지는데 먹구름이 잔뜩 찌푸려 낮에도 창가가 어둑어둑하다. 번개는 ‘하늘을 가로질러 뛰어다니’고 우레는 ‘비를 끌고다니’니 비에 놀란 피꼬리는 나뭇잎 속으로 숨어버렸고 제비는 거센 바람에 위태위태 날아간다. 이 시는 3년만에 벗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은 시인데 재회의 회포에 관한 내용보다는 때마침 장마를 만난 기후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3년 동안의 이별의 시름과 어울리는 배경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실제로 보고 겪은 ‘실경’의 분위기가 짙다. 장마철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을 사실적으로 생동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번개와 우레가 하늘에서 비바람을 몰고 뛰어다닌다고 한 표현도 생생하다. 피꼬리와 제비야말로 가장 조선적인 경물들이다. 실경을 위주로 그려내는 이이의 시는 조선 후기의 시인들처럼 토속적이거나 지극히 실생활적인 것을 읊는데까지 미치지 않는 다. 또 경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실재하는 것들에게서 감회를 느끼고 또 그것에 입각해서 표현하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한시인들이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장소와 시간과 경물을 즐겨 시에서 읊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일록소’ 동요를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부르고 자란 것처럼 중국의 한시를 열심히 학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답습하는 차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이의 시는 이러한 관습에 대한 무언의 문제제기인 셈이다.

둘째, 이이의 시는 비일상이 아닌 일상의 세계를 읊고 있다는 것이다. 이이에게 있어서는 시를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 같다. 감정의 고양된 한 순간이나 특별한 일만이 아닌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었으니, 기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이라든가 교유, 음주, 방문, 이별, 가품 및 역병에 대한 걱정, 그림 및 지나가던 절에서 본 석분, 또는 봄 추위, 그리고 그에 따른 그의 생각과 감회등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생활 주변의 일상사나 사소한 감정들이 모두 그의 시의 소재가 되었다. 그에게 있어 시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그때 그 때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었으니 다음과 같은 시는 이이 시의 이러한 측면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世味淡於水 세상 맛이 물보다도 담담해지고
吾生嗟已寗 내 인생도 아하 벌써 시들하네만

憐憐不能釋 차마 마음 못 놓는 것은
只有膝前兒 다만 아직 슬하에 아이 있어서네.

<우연히 읊다 偶吟>

어느 날 문득 기력이 쇠해감을 느끼면서 그는 자신의 죽음에까지 생각이 미쳤던 것 같다. 실제로 그는 이 시를 쓴 4년 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다른 것은 아무 미련이 없지만 아직 아이가 어린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였다. 대학자, 경세가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그는 이러한 부정을 오언절구의 짧은 형식 안에 직설적으로 담아내었다. 시를 쓰다 만 것 같기도 하고 최소한의 지적 수사의 흔적도 전혀 없다. 마치 어느 한 순간 떠오른 斷想을 시로 메모한 듯하다. 이런 종류의 시들은 창작의 고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는 일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시로 쓰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시는 곧 일상 생활 속의 편지이기도 하고 일기이기도 하였다.

病中省人事 병중이라 인사를 생략하고
灑掃清幽室 골방을 깨끗이 청소하였네.
小簾對焚香 작은 화로를 대하여 향을 피우며
明窓坐終日 환한 창가에 온종일 앉았다가
意到輒開卷 생각이 나면 문득 책도 펴보고
倦來還掩帙 싫증나면 도로 덮어버린다오.
計往猶尤悔 지난 일 헤아리면 허물과 너무침 뿐,
遠來庶無失 앞으로는 그런 잘못 없도록 하려네.
惺惺保此念 정신을 번쩍 차려 이 생각을 간직하면
喧寂當如一 이수선하거나 조용하거나 응당 한결같으리.
感發遂成詩 감회가 우러나 마침내 시가 되기에
因之寄同疾 같은 병 앓는 이에게 부친다오.
<감기를 앓아 골방에서 소리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호원에게 부친다. 感寒疾調于密室有感寄浩原>

이 시는 해주 석남에 은거하고 있던 42세 때에 지은 시이다. 감기를 앓은 후 약간 기운이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기거하던 방을 깨끗이 쓸고 닦고 나서 작은 화로에 향을 피워 정신을 가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일어나 앉았으므로 창밖의 풍경을 온종일 내다보기도 하고, 책을 펴서 읽다가 기운이 부치면 다

시 떨어버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병을 앓는 것이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도 같아 번잡한 일상을 떠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감기를 앓아서 수척해지긴 했지만 몸과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지난 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자신에게 약속해본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마음을 앞으로도 계속 간직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때 느낀 감회를 시로 지어 마침 같이 감기를 앓고 있는 성혼에게 부친다고 하였다. 마치 일기나 편지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일상적 생활을 아주 소소하고 정감있게 그리고 있다. 자기가 겪고 느꼈던 자질구레하고 평범한 신변잡사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도란도란 시 안에 담아내었다.

有約人何去 약속은 해놓고서 사람은 어딜 갔고고.
 客來撿鳥糞 손은 왔는데 깃들이는 새마져 드물구나.
 月綠寒樹沒 달빛은 차가운 나무 따라 사라지고
 鍾度華山微 종소리는 높은 산 거쳐 가날퍼지네.
 擊目凝清思 시선 모아 많은 생각을 집중하고
 回燈照夜帷 등불 돌려 밤 안개비를 비춰보네.
 深杯叙離別 큰 술잔으로 이별의 정 풀어버렸네
 寂寞素心遠 쓸쓸하게 본 마음관 어긋나지만.
 <여러 벗들과 계합의 집에 갔는데 계합이 마침 출타했다가 밤에 돌아와서
 조그만 술자리를 베풀다. 與諸友到季涵家季涵他適入夜而還小酌>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벗들과 함께 정철의 집에 찾아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온 주인과 간단하게 술자리를 나눈 뒤 돌아오는 길에 지은 시로, 제목부터 멋있게 지으려고 고심하기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서술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淸遊를 즐길 것을 기대하고 벗들과 함께 먼 길을 찾아갔는데 웬일인지 집주인은 약속을 하고서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밤이 이속해서야 허둥지둥 간단하게 술자리를 마치고는 돌아오는데 섭섭하고 쓸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 섭섭한 심정이 “깃들이는 새도 드물고 달빛은 기울어가며 종소리는 희미해져 가는데 때마침 돌아오는 길에 안개비까지 내린다”고 한 풍경 묘사에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고, 이어서 “쓸쓸하게 본 마음과는 어긋난다”고 한 마지막 구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다른 근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별 일 아닐 수도 있는, 약속이 흐지부지 된 데 대해 서운함을 표현한

이 시를 보면 도학자이기 이전에 인간의 체취가 물론 느껴지기까지 한다. 시가 일상적인 생활의 정감에 훨씬 더 접근해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그의 작품에는 유난히 제목이 긴 시가 많은데 이것 역시 시의 일상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시의 제목이 서술적이라 문학적인 함축성과 거리가 멀고 또 제목만 보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생각과 느낌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일상적 삶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개만 들어보겠다.

이순인, 조공보, 윤기, 최립, 최경창 및 조대남과 계현등이 나와 함께 양화도 부근 선유도에 배를 띄웠다. 내가 장차 서쪽으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제군들이 전송하러 나온 것이다. 가운이 성문을 나올 때 시를 지으므로 그 운에 따라 차운하였다.(李伯生純仁 趙公保 尹仲說箕 崔立之崧 崔嘉運慶昌 及趙兄大男 季猷與余 共泛舟于楊花渡傍仙遊島 余將有西行 故諸君出錢也 嘉運出城時有詩 因次韻)

김덕기 군은 대사성 김식 공의 셋째 아들로써 기개와 도량이 특출하여 범상치 않았다. 생업을 일삼지 않고 미록촌에 숨어 살며 형제간에 화목했는데 그가 지은 <가소음>이란 시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여 주었다. 나는 그 위인을 사모하여 차운하고 그 이름이 후세에 알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미록촌은 내가 사는 곳에서 수 리가 되는데 김군이 작고한 지 지금 약간의 해가 흘렀다. 金君德器 大司成金公湜之第三子也 氣度倜儻不凡 不事生產 隱居樂鹿村 兄弟相樂也 有詩曰 可笑吟 人有示余者 余慕其爲人 爲之次韻 欲使名聞于後世也 樂鹿村距吾卜居數里 金之歿今若干年>

대사간으로 부르는 명을 받고瑋가 거기에 응하여 갔다. 그것은 주상께서 상중에 계셨으므로 위안도 드리고 경하여 사은도 하고 돌아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에 머무른지 한 달이 되어도 끝내 면대를 못하고 배를 타고 서쪽으로 내려오다가 감회가 일어 이 시를 써서 호원에게 부친다 承命召以大諫 珥赴徵 將以慰上在坎筭得謝恩而歸 留京一月 竟未得面對 乘舟西下 感懷有作 晝寄浩原

내가 풍악산을 유람하면서도 게을리 시를 짓지 않았다가 유람을 마치고 나서 이제야 들은 것 또는 본 것들을 주워 모아 삼천 마디의 말을 구성하였다. 감히 시라 할 것은 못되고 다만 지나가며 겪은 바를 기록했을 뿐이므로 말이 더러 속되고 운도 더러 증복되었으니 보는 이들은 비웃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余之遊風嶽也 懶不作詩 登覽既畢 乃撫所聞所見 成三千言 非教爲詩 只錄所經歷者耳 言或徑野 韻或再押 觀者勿嗤

이밖에도 서술적 문장형의 제목이 부지기수다. 앞에서 예로 든 시들은 시가

직접 일상적 삶의 단면 및 그에 따른 생활 정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런 소재들은 최소한의 詩性마저도 해칠 우려가 있고, 정형시인 한시의 격식 안에 다 담아내기는 무리일수도 있다. 또 시라는 형식을 쓰되 운문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세한 정황을 더불어 서술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이는 제목에서 시를 짓게 된 정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시에서는 자신의 감회만을 표백하는 방법을 택한다.

一葉載玉軫 조각배에 거문고 싣고
 相期天上郎 천상의 선랑과 기약했건만
 風潮阻柔櫓 바람 조수가 노를 방해하므로
 悵望烟蒼茫 아스라한 연기만 쓸쓸히 바라보네.

<여기 김위가 경차관으로 나를 남강으로 찾아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강의 배로 나를 찾아와서 같이 타자고 하였다. 나는 계현과 함께 작은 배에 다 거문고를 싣고 가려했으나 바람결에 조수가 거슬러 옴으로 배가 건널 수가 없기에 바라보기만 하면서 지었다 金汝器偉以敬差官訪余于南江其明日復來江上船邀余同載余與季獻載琴小船風潮逆至舟不得渡望見有作>

이 시는 김위의 방문을 받고 아우 계현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은 시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차관으로 내려온 김위가 남강으로 이이를 찾아와서는 다음날 뱃놀이를 가자고 제의했는데 작은 배에다 거문고까지 싣고 준비했지만 바람이 조수를 거슬러 부는 바람에 막상 뱃놀이를 하지 못하고 아쉬웠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황을 제목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시는 '오연절구로 짧게 읊었다.

시의 내용은 제목에서 이미 밝힌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시에서는 '船'을 '一葉' '柔櫓'로, '琴'을 '玉軫'으로 김위를 '天上郎'으로 묘사하여 그들의 船遊를 신선의 그것처럼 하늘하늘 가볍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선유가 바람과 조수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창망하게 푸른 연기만 바라보고 싶다고 했으니 선유가 아름답게 표현된 만큼 실망감도 크다. 더구나 마지막 구는 특이하게도 "창망연창망(悵望烟蒼茫)"이라고 하여 동음이의어를 거꾸 구사하고 있는데 실제 글자의 의미와는 별도로 그야말로 '창망'한 심정이 강하게 표출된다. 산문과는 또 달리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작가의 감회를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이는 이 시에 바로 이어서 <여기와 함께 호연정에 올라 관람하고 다음날

배를 띄워 강 위에서 풍악을 울리다가 해가 저서야 파했다 與汝器登覽浩然亭明日泛舟江中奏樂日沒而罷》라는 시를 지었다. 뱃놀이는 못한 대신 호연정에 올라 승경을 유상하고는 다음날 다시 뱃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주로 뱃놀이의 흥취를 노래하고 마지막 연에서 이별을 담담하게 읊었다. 굳이 그렇게 제목을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아도 시의 내용이나 이해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더구나 시적 함축성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학이란, 또 시란 무엇인가라는 생각과 연관된다. 그의 시는 재복과 아울러 문인, 학자, 관료,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이이의 일상적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시는 창작의 고통과는 거리가 먼 일기나 편지 같은 생활 문학이 되는 것이다.

3. 시적 표현의 진실성

보통 한시에서는 인명이나 지명등 조선의 고유 명사를 중국의 그것으로 바꾸어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이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삼당시인들은 전라도 강진을 ‘金陵’으로, 황해도 白川을 ‘白帝’로, 강원도 강릉을 ‘藥珠’로, 충청도 충주를 ‘藥城’으로, 경기도 광주를 ‘廣陵’으로 바꾸어 부른다든지, 환락적인 지역이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한스러운 곳의 대명사로 ‘江南’ 등의 지명을 자주 차용하였다. 한시인들이 조선의 고유 명사를 중국의 것으로 바꾸어 부른 이유는 “우리나라 지명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명은 모두 문자여서 시에 들어가면 모두 아름답지만” “우리 동방은 모두 방언으로 지명이 되어있어 시에 들어가면 우아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³⁾ 즉 우리의 지명은 속되기 때문에 한시에서는 생경한 우리의 지명 대신 자주 쓰여왔던 중국의 지명을 씌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雅化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음운의 평측과 같은 한시의 격식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운용의 문제

3) 「鶴山樵談」, “峯狐竹盡嘗曰我國地名不及中原故作詩不得使地名每以爲恨”

「惺叟詩話」, “趙持世常曰我國地名入詩不雅”

「小華詩評」, “世謂中國地名皆文字入詩便佳…我東皆以方言成地名不合於詩”

이다. 사대주의 여부를 떠나서 역시 하나의 편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이는 그의 시에서 산과 강, 마을의 이름 등 地名 및 누정, 절의 이름, 호나 벼슬 이름 등 조선의 고유 명사를 자주 구사하고 있다.

삼당시인의 대변인격인 허균 역시 당시에 조선의 지명을 시어로 쓰는 것을 부분적으로 긍정했다고 한다. “그 단련의 묘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을 뿐이니 어찌 점철성금에 방해가 되겠는가”⁴⁾라고 하여 조선의 지명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시어로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즉 ‘以俗爲雅’의 雅化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시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허균은 한시에서 조선의 고유 명사를 쓰는 것을 인정하되 ‘단련’이라는 단서를 붙여 부분적으로 긍정한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 해동강서시파 시인들도 조선의 고유 명사를 수용하여 시를 지었는데, 그들의 시는 조선의 고유 명사가 실제 경물의 묘사와 어우러져 흥취를 유발하거나 생경하고 기이한 느낌을 주어 참신한 의경을 창출함으로써 진부한 시어와 의경에 식상해있던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양상을 띠고 있다.⁵⁾ 이이의 경우에는 그저 ‘紀實’ 즉 사실을 충실히 기술하려는 의미였던 것 같다. 무엇보다 그의 시가 주는 느낌이 흥취 유발이라든가 기발하고 생경한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 또 시어를 단련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저 담담할 뿐이다. 그는 실재하는 경물을 실담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작품을 보자.

然師舊聞名 천연선사는 일찍이 이름난 선사
壯氣擎不周 장한 기세가 부주산을 떠받들 만하다.
一拳破山石 한 주먹에 (천왕봉) 돌을 부수니
妖氛霧頭流 두류산에 요사한 기운이 확 가지었네.

我到巖泉寺 내가 암천사에 이르러
迤倚寒巖頭 차가운 바윗머리에 기대어 있는데

明朝舉別袖 내일 아침에 작별의 소매를 들면
路指金剛脩 곁고 먼 금강산 길을 가리다.

4) 「惺叟詩話」, “...然巖相詩 ‘路盡平丘驛 江深判事亭’ ‘柳梢青坡晚 天晴白嶽春 亦殊好 其在鐵鍾之妙而已 何害點鐵成金乎’”

5) 이종욱, 『해동 강서시파 연구』(태학사, 1995), 308~9면 참조

.....

<천연상인에게 시를 주다. 내가 안협의 암천사에 이르자 천연상인이 와서 인사하였는데 그는 바로 과거에 지리산 천왕봉의 음사를 파괴한 자였다. 贈天然上人余到安峽岩泉寺天然來謁是會破智異山天王峰淫祠者也>

천연선사(然師), 두류산(頭流), 암천사(巖泉寺), 금강산(金剛)등 조선의 인명과 지명을 네군데에서 구사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시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을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서 특별한 시어의 단편 없이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생경한 어감이란든가 시의 흥취라기보다는 시의 내용상 사실성과 구체성 확보의 차원 정도로 해석된다. 거기서 시의 흥취라든가 참신한 의경이 창출된다면 그것은 시의 완성도에 따른 부차적 문제이다. 예를 들어 “눈 휘날리는 봄에 한양을 떠나지만 두류산 시냇가에엔 꽃향기 컸었으리. 雪月霽春發漢陽 頭流應濕潤花香”(〈贈安彥盛慶昌〉), “봉우리는 갑악산에서 떨어왔고 들은 임진강에서 흘러오네. 峰巒來紺嶽 煙浪下臨津”(〈偶吟〉), “가운데서 나뉜 들은 능라도를 안고 흐르고 한 가닥 연기는 금수봉을 가로질렀네. 中分水抱綾羅島 一抹煙橫錦繡峰”(〈乘船遊浮碧樓〉)와 같은 경우는 조선의 지명이지만 적절한 곳에서 댕구로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주어 시적 흥취를 일으킨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이가 조선의 고유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서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사를 제시만 하는 형태를 띤다. 즉 시적 대상을 기술하면서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고 구사하되 지금 이 땅에서 불리우는 그 명칭 그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불려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五臺山下月精寺 오대산 아래 월정사라,
門外滌溪不息流 문 밖의 맑은 냇물 쉬지 않고 흐르는데
可笑納僧迷賞相 가소롭다. 스님이 賞相에 미혹하여
只將無字漫難求 無字만을 갖고서 부질없이 추구하네.

<산인에게 주다 贈山人>

이 시는 이이가 그의 나이 34세 때 오대산에 머물면서 지은 시이다. 절 문 바로 앞의 냇물이 밤낮 없이 흐르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리와 도체의 현현인데 스

넘은 바로 눈 앞의 실상을 외면하고 ‘無’자와 같은 고원한 화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이이는 시의 첫머리에서 “오대산 아래 월정사라” 라고 돌발적으로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길지도 않은 4구의 시 가운데 1구를 그곳에 대한 자세한 묘사도 아닌 다만 지명을 제시하는데 할애해 버렸다. 어떻게 보면 시인으로서 매우 불친절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독자가 직접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밖에 없다. 3, 4구에서는 ‘可笑’ ‘只將’ 등 산문에서 주로 쓰는 助字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있다. 아무런 인위적인 수식 없이 지명만 제시함으로써 구구한 묘사나 설명을 생략하였고, 그런 이유로 짧지만 단호하면서도 담담한 풍격을 갖추었다.

이이의 시적 표현이 진실한 두 번째 이유는 전고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표출하여야지 직접 체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시구나 시상을 차용하는데는 신중했던 것 같다. 그가 개인적으로 쓴 시에서는 전고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응제시나 중국 사신과 전대한 시에서 전고가 조금 쓰였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시제가 李白이나 項梁 등 과거 중국의 일을 소재로 하고 있을 경우이고 그 외에는 가급적 전고를 쓰지 않고 있다. 전고를 쓰더라도 대체로 많이 쓰인 것이 인명 정도이고 고사는 사서삼경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지명은 더욱 적어서 蓬萊山, 不周山, 冉溪, 愚溪, 灤河, 鎬京, 商邑, 三神山 정도가 다이다. 그나마 조선의 지명을 중국의 그것으로 바꿔 부른다는 그 곳에 있다는 상상과 같은 허구적 정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과 부합할 때 적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此日足可惜	이 날이 너무도 애석하고
此別真可傷	이 이별 참으로 마음 아프다.
那知駟與犛	어찌 알았으랴, 거와 공이
轉作參與商	변하여 삼과 상이 될 줄을
秋空灑輕雨	가을 하늘엔 가벼운 비 뿌리고
漢水流洋洋	한강물은 한없이 흘러만 간다.
宜尼戒三臧	공자께서는 삼함을 훈계하였고
大易貴包荒	주역에는 포황을 귀히 여겼다.
林居勉存省	산림에 살면서 존양 성찰에 힘쓸지니
此語顯毋忘	부디 이 말을 잊지 말게나.

〈계함을 노량 강각에서 작별하다 別季涵于露梁江閣〉

송강 정철과 작별하면서 아쉬운 마음과 당부의 말을 적은 시로서 이이의 작품치고는 전고가 많이 쓰인 예이다. 駉와 꿀은 항상 붙어 다니는 별래 이름이고 參과 藟은 각기 서방과 동방에 서로 등져 있어 동시에 함께 볼 수 없다는 별 이름이다. 三緘은 《孔子家語》에 나오는 말로 후지의 사당 뜰 앞에 金人이 셋 서 있는데 그 입을 세 군데나 껌매었고 그 등에 새겨져 있기를 “옛날에 말을 삼간 사람이다. 경계할지어다. 말이 많으면 실패가 많으니라”고 하였다 하니 말을 삼가라는 가르침이다. 包荒은 《周易 泰卦》에 나오는 것으로 말 그대로 거칠고 더러운 것을 싣는다는 의미이다. 즉 3, 4구는 “거와 공처럼 항상 붙어다니던 그대와 내가 삼성과 상성처럼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고 7,8구는 “항상 말을 삼가고 사람을 보용하는 도량을 가지라”는 당부의 말이다. 한자 문화권의 유자들이라면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단어처럼 사용하던 수준이다. 더구나 전자는 거의 직유의 수준이다. 이렇듯 그는 전고를 활용하더라도 험박한 것은 쓰지 않았으며 깊은 뜻이 기탁되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전고란 이미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시어나 어구를 빌려쓰는 것으로 여기에 ‘기존’이라 함은 물론 과거 중국이라는 중세 보편 문화를 의미한다. 전고는 풍부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게 하며 최소한의 격조를 보장한다. 또 독자적인 의미 이외에 더욱 풍부한 내용을 환기시킨다.⁶⁾ 그러나 전고란 과거 중국의 이상적인 시간, 공간, 그리고 인물들을 통하여 지금 눈 앞의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눈 앞의 일을 시로 표현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원래 전고의 문맥 상황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눈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시화하고 싶다면 전고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더구나 전고는 이미 마련된 기존의 지식을 충실하게 학습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독자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니 그렇게 충실하게 학습한 작가에 준하는 박식한 독자만이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의 상호 교류 작용을 중시한 이이가 전고의 활용을 즐기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도 자명해진다. 다음과 같은 작품을 보자.

6)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 사상』(한길사, 1995), 244~260면에서 전고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언급.

千里行色困 천리길 가뜩이나 행색이 피곤한데
 山路何多石 산길엔 웬 돌이 이렇게도 많은가.
 羸馬策不進 여윈 말이라 채찍질해도 가지 않는데
 斜陽掛喬木 지는 해는 벌써 높은 나무에 걸렸네.
 前山漸欲暝 앞산은 차츰 어두워가고
 所經多虎迹 지나는 곳엔 호랑이 발자국도 많아라.
 穿林抵孤邨 숲을 지나 외진 마을에 다다르니
 一樓炊煙碧 실끝 같은 저녁 연기가 푸르구나.
 老翁喘且語 늙은 할아버지는 숨찬 말로
 隔籬問何客 울타리 밖에서 어떤 객이나 묻고
 老婦抱兒出 늙은 할미는 아이를 안고 나와서
 遮門不許宿 문을 가로막고 투숙을 허락하지 않네.
 下馬倚積薪 말에서 내려 쌓인 쭉대에 기대고
 倦極交雙目 매우 피곤해 잠깐 눈을 붙였다.
 松明與檜柱 관솔불 등걸불은 피고 있지만
 ○襟生寒粟 옷깃이 썰렁 한기가 들어
 緩頰借溫房 따스한 방을 빌려달라 조용히 타이르니
 主翁眉間蹙 주인 늙은이 이맛살을 찌푸린다.
 呼前酌卮酒 앞으로 불러와 잔술을 권했으나
 立飲無欣色 서서 마시며 기뻐하는 안색 없고
 彈舌指盆甌 혀를 차며 봉창 가리켜 말하기를
 此室吾豈惜 내 어찌 방이 아까와 그러겠소.
 兒輩依土牀 아이들이 흙 평상에 자게 되어
 不忍露赤脚 맨 다리 내놓는 걸 차마 못보기 때문이요.
 請入謀諧婦 들어가 아내에게 의논해 보리다 하더니
 良久乃肯諾 한참 뒤에야 나와서 승낙을 한다.
 強顏○躬入 염치를 무릅쓰고 몸 구부려 들어가는데
 舉頭頭打屋 머리를 들다가 집 천장을 들이받았네.
 夜半假寐罷 한밤중에 선잠을 깨서 보니
 衆兒喧後壁 아이들이 벽 뒤에서 떠들썩한다.
 呼寒爭一衣 춥다면서 옷 하나를 서로 다투며
 怨客恣罵辱 객을 원망하는 욕설이 거침없어라.
 喟然却興歎 한숨을 쉬며 탄식하노니
 此豈民風惡 이 어찌 풍속이 본래 나빠서이라.
 何時不羸糧 언제나 식량 걱정 없는 세상 되어
 到處人心朴 가는 곳다다 인심이 순박해질고.

<대화도중 大和道中>

이 시는 그의 나이 30세인 1565년 강원도 방면의 大和 지방에서 묵게 된 어

느 산골 일가의 척박하고도 황량한 생활상을 그린 시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호랑이가 출몰하는 짙은 산골을 말 한마리에 의지해서 지나가는데 계다가 돌밭길이라 여우고 지친 말은 아무리 채찍을 쳐도 꼼짝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마침 숲을 건너 외딴 마을에 인가가 보이길래 하룻밤 묵기를 청하지만 그 집의 할아버지는 룬도 열어주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누구냐고 단 뜰고 아기를 안은 할머니는 아예 몸으로 문을 가로막기가 지 한다. 하는 수 없이 울타리 곁에 쌓아둔 쭉뚝에 기대어 쉬려하는데 너무 추워서 다시 할아버지를 불러 잔술을 권하며 부탁했으나 방이 아까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쫓 방이 없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자게 되는 것이 안쓰러워 그런 것이라 하며 마지못해 허락한다. 겨우 몸을 숙이고 들어간 방은 집천장에 머리를 박을 만큼 작고 초라한데 방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은 바깥에서 옷 하나를 서로 덮으려고 다부며 객에게 욕설과 원망을 퍼붓는다. 이이는 이렇듯 각박한 산골 백성들의 인심이 적어도 풍속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의 문제, 즉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오로지 백성들의 풍속이 나빠서 생긴 문제라면 교화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가난 때문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인가? 이이는 문면에서 누구에게 탓을 돌리며 비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태를 보는 시각이 좀 안이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신이 관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죽 남을 탓하기 이전에 경세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고뇌하는 마음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이이가 살고 있던 당시, 그 곳 조선에서 우리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적은 시로서, 이러한 비참한 생활상을 소박한 5언고시체 안에 사실적이고도 현장감 있는 대화체를 섞어가며 실감나게 적고 있다. 그는 산림과 전원을 감상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의 수준에서 보고 느끼고 읊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꾸밈이 없이 사실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처 전고를 쓸 겨를이 없다. 만약 이런 시에 전고를 쓴다면 시의 템포가 한 박자 늦춰지면서 이야기의 사실성과 작가의 진솔한 심정 표출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이 시의 의미는 독자적인 의미 그것뿐이다. 그럼에도 작가의 실제 체험과 거기서 우러나온 심정이 그대로 시화하면서 저절로 감동적인 시편을 이루

게 되었다.

4. 결 론

이이는 개성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는 특정한 인물이나 작품, 물건 등을 존송하거나 酷愛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대상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이는 師承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생은 천품이 매우 높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학문을 할 줄 알았다…스승의 전수를 말미암지 않고 도체에 저절로 계합”⁷⁾ 하였다거나 “산하의 정기를 타고났고 열락관민의 적전이네. 사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현과 은연중에 계합되었네”⁸⁾라고 한데서 익히 알 수 있다. 그를 生知的 資質이라고 평가하고 “我東方孔子”⁹⁾라고 하는 것도, 퇴계의 학문이 ‘依樣之味’가 있는데 반해 이이의 그것은 ‘自得之味’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이이는 ‘自得’ 즉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부딪쳐 체험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만큼 지금, 여기의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고 방식이 시에도 반영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는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겪은 일들을,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입각하여 당시에는 속어로 간주되었던 조선의 고유 명사들까지 마다하지 않고 시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중국 한시에서나 보고 들었던 상상의 세계라든지 신선과 같은 비현실적 세계, 성리학적 순수 관념의 세계, 혹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정의 고양된 한 순간만을 시화하던 태도와는 분명 대조되는 것이다. 그는 낭만과 관념이 지배하던 조선의 문단에 현실을 되돌린 것이다.

이이가 자신의 이러한 작시 태도에 대하여 문학론이나 「精言妙選」등에서 구

7) 『栗谷全書』卷37, 附錄 五, 宋時烈 著 <紫雲書院廟庭碑> “…先生天分甚高 不由師承 自知爲學…故諸老先生 嘗論之曰 不由師傳 默契道體…”

8) 上揭書, 卷37, <附錄> 五, <正宗君御製紫雲書院致祭文> 辛丑 七月 作 “河山正氣 關洛病傳 不由師承 默契聖賢”

9) 嶺 菴, 己酉年 二月 作 “坡山峨峨 百世仰止 展也文成 左海夫子”

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다만 관념성을 탈피하고 구체적인 사물에 즉하여 도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며,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밖에서 의물을 보고 느끼어 발하는 것이라고 하여 합리적 심성론 대신 경험론적 심성론을 주창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때에 알맞은 것을 강구할 것을 강조한 그의 주기론적 세계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이후에 가면 이러한 기실적 시세계가 조선 시단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東岳 李安訥(1571 - 1637)이나 三淵 金昌翁(1653 - 1722), 惠寶 李用休(1708 - 1782), 滄齋 柳得恭(1749 - 1807), 荊山 李崍九(1754 - 1825) 등에게서 그러한 면모가 나타남을 규찰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경향의 작가와 작품들은 사실 개별적 연구가 집적된다면 더 많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니 이는 주기론적 세계관의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이가 보다 근대적인 성향의 주기론적 성리학을 주창한 것은 이이라는 천재가 하루 아침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한 개인적이고 우연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러한 사상의 흐름을 배태할만한 시대적 분위기가 두드러져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토편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것, 관념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것에 주목하는 주기론적 세계관이 점차 확산되어 갔을 것이고, 그에 따라 문학 역시 중국 중심의 보편적인 것을 벗어나 보다 우리의 것에 관심을 갖고 직접 경험하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식이 확산되어 간 것이다. 학문으로나 문학으로나 이이는 싹을 틔워놓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김성봉, 『여말선초의 문학 사상』(한길사, 1996)

남재철, 「강산 이서구 시에 있어서 '진실'의 문제」, 『한국 한시 연구』5 (한국 한

10) 이종목, 「이안눌 한시 연구」, 『한국문화』15 (서울대학교, 1994), 안대희,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소명출판사, 1999), 박용만, 「이용휴 시의식의 실천적 의미에 대하여」, 『한국 한시 연구』5 (한국 한시 학회, 1997), 남재철, 「강산 이서구 시에 있어서 '진실'의 문제」(상동), 송준호, 『유득공의 시문학 연구』(태학사, 1985) 참조.

시 학회, 1997)

박용만, 「이용휴 시의식의 실천적 의미에 대하여」, 『한국 한시 연구』5 (한국 한시 학회, 1997)

배종호, 『한국 유학의 철학적 전개』(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송석구, 『율곡의 철학 사상 연구』(형설출판사, 1988)

송준호, 『유득공의 시문학 연구』(태학사, 1985)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소명출판사, 1999)

이종묵, 「이안눌 한시 연구」 『한국 문화』15 (서울대학교, 1994)

_____, 『해동강서시파 연구』(태학사,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Tendency of 'Recording Facts (紀實)' of Yul-gok Yi I's Poems

Hong Hak-Hee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tendency of 'recording facts (紀實)' which is one of the several characteristics of Yul-gok Yi I's poems. Though most of the poets at that times were trying to say the general subjects based on the situations which were likely to happen, Yi I completely showed the contemporary and co-space world of poetry.

In general, the other poets described some sceneries they had read in the Chinese poetry or followed the customarily used expressions or directly borrowed the emotion of Chinese poetry. On the contrary, Yi I didn't select imaginary and unusual things but realistic and usual world as poetic materials. And he wrote his poems based on realistically existing things and his own experiences. Additionally, he wrote poems close to daily lives not when he was emotionally activated.

In the aspect of expressions, he directly used the proper nouns of Chosun which were regarded as vulgar at that times, such as names of places, persons, and countries, in his poems. He didn't change them to those of China. And he hardly used 'ancient Chinese story (典故)'.

It seems that this tendency was not in the dimension of freshness or extraordinariness but in the dimension of recording facts. And such tendency of recording facts observed in Yi I's poems was originated from his philosoph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ki(氣), in which he stressed phenomena, things, and change of time. Due to the diffusion of such view of the world, it can be assumed that the world of poetry based on recording facts has established a flow of Chosun's poetry since 17th century.